

'속장경'은 '교장(敎藏)'으로 불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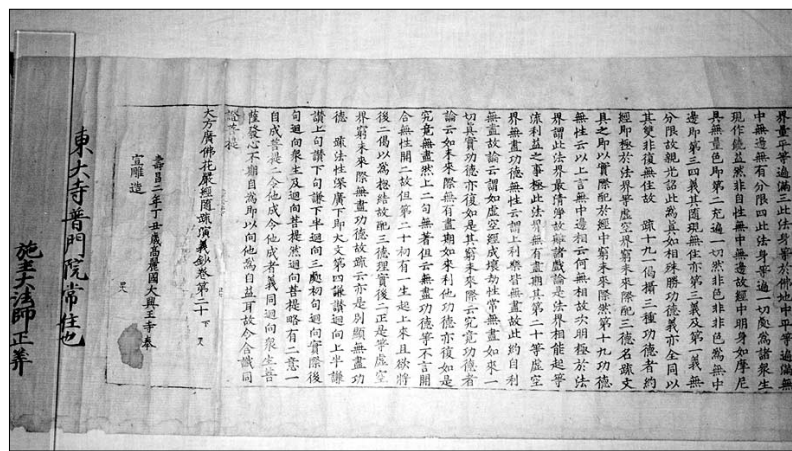
의천이 수집 편찬한 것은 삼장관련 연구논문들 일본 학자가 잘못 사용... 교과서·사전도 그대로 써

“초조대장경이 만들어진 얼마 후에 의천은 고려는 물론 송과 요의 대장경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속장경을 편찬하였다.” “고려 초기의 의천이 편찬한 대장경. 고려 현종 때 초조 대장경을 간행한 바 있다. 이어 거란 대장경을 참조하여 고려 문종 때 완간하여 속장경 또는 고려 속장경이라 하였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와 민족문화대백과에 실린 '속장경(續藏經)'에 대한 설명이다.

이 설명에는 몇 가지 오류가 담겨 있다. 의천 스님이 수집·편찬한 것은 경전이 아니라, 경·율·논 삼장(三藏)에 대한 연구논문(章疏)들이었다. 따라서 대장경과 같은 범주로 묶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면 대장경의 속편이라는 뜻을 지닌 속장경이라고 부르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속장경이란 명칭은 잘못된 것이며 '교장(敎藏)'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주인공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박상국 실장. 불교서지학자인 박 실장은 6월 22일 의천 스님의 원각본(原刻本, 원래 목판으로 인쇄된 서적) 사진을 공개하며 속장경이라는 명칭의 그릇된 사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사진은 일본 나라의 도다 이치(東大寺에서 촬영한 것으로 사진으로나마 원본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교장이 바른 이름이라는 것은 당시에 유통된 연구논문들을 의천 스님이 목록으로 정리한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藏總錄)>이라는 제목에서도 드러난다. '여러 종파의 교장의 목록'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 연구논문들을 교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대각국사 문집에 있는 '대세자집교장발원소(代世子集敎藏發願疏)', '대선왕제종교장조인소(代宣王諸宗敎藏影印疏)' 등에서도 분명히 교장이 제 이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천 스님이 간행한 원각본 교장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

그렇다면 교장이 속장(經)으로 불리지게 된 건 왜일까. 박 실장은 고노 겐묘라는 일본인 학자가 1911년 저술에서 속대장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시초로 본다. 속대장경이란 대장경 후편의 의미로 일본에서 사용됐던 말이다. 국내 학자들은 고노 겐묘를 따라 아무 의심 없이 속장(經)으로 불러왔고, 국사 교과서에까지도 버젓

이 속장(經)으로 올라 있게 된 것이다. 박 실장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7년에 이미 속장경이란 명칭이 잘못됐고, 교장으로 불러야 함을 주장한 바 있었으나 그간의 잘못된 용어 사용의 관행을 고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교장을 속장(經)으로 불러 생기는 부작용은 단지 명칭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교장은 물론 대장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야기하고, 잘못된 개념이 고착되면 학문의 발전까지 왜곡될 수 있다.

박 실장의 가장 큰 바람은 국사 교과서의 '속장경'이 교장으로 바로잡히는 것이다. 교과서가 속장(經)이라고 적는 것만 바른 이름인 교장이 설 자리는 없기 때문이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北 고구려 유적 세계유산 될까?

고구려 고분 등 신청, 28일부터 유산위 총회

북한과 중국이 신청한 고구려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여부가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열리는 제 28차 세계유산위원회(WHC) 총회에서 가려진다.

지난 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세계유산 검토회의에서 북한과 중국의 고구려 유적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를 권고한 바 있어서 등재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5개 지역 63기의 고분을 '고구려 고분군'이라는 이름으로 신청했는데 △동명왕릉 주변 고분 15기 △호남리 사신총 주변 고분 34기 △덕화리 고분군 3기 △강서삼묘 3기 △독립고분 87기가 포함됐다.

중국은 '고구려의 수도와 왕릉, 그리고 귀족의 무덤'이라는 이름으로 신청했다. 포함된 유적은 △요녕성 환인현의 오녀산 산성 △길림성 집안(吉林省 集安)의 국내성 △길림성 집안의 환도산성 △둥구 고분군 △태왕릉과 광개토태왕비 △장군총 △오회분 △왕자총 등이다.

북한은 2002년 1월에도 고분 63기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했으나 보존 및 연구 미흡 등의 이유로 결정이 유보된 바 있다.

내달부터 온라인서비스

한국불교전서 9·10권

한국불교전서 9·10권이 7월 초부터 온라인으로 서비스된다.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소장 보광)는 1999년에 1·2권을 시작으로 매년 두 권씩 입력해왔는데, 올해 9·10권을 추가 총 13권 중 10권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한국불교전서 온라인 서비스는 전자불전연구소의 홈페이지(<http://ebti.dongguk.ac.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02)2260-3504



법주사에서 참선정진 중인 한국선학회 회원들.

토론과 실천 여름공부 '만족'

한국선학회 법주사서 '학술발표 및 선수련회'

선 학자들이 학인 스님들과 토론하고 실천하는 이색 학술회의가 열렸다.

한국선학회(회장 현각)가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속리산 법주사(주지 도공)에서 학술발표회 및 선 수련회를 가진 것. 한국선학회와 법주사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법주사 승가대 학인 스님들이 발표회에 동참하고,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시작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

6월 19일 법주사 공현당에서 열린 학술발표회에는 선학 전공자 40여명과 법주사 승가대의 학인 스님 20여명이 모여 토론을 벌였다. 선 이론을 연구하는 이들과 출가 수행자가 만나 수행과 이론이라는 서로에게 취약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토론 뒤에 참석자들은 상견례를 가지며 선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공유했다. 박영희(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연구원은 "스님들과 함께 발표회를 가지니 마음이 경건해지고 긴장도 됐다"면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나타내기도.

발표회에 이어 열린 선 수련회는 선을 학문적으로 다루어온 학자들에게는 실천의 기회가 되었다.

참선정진, 금강경독송, 산내 암자 경험, 혜정 스님 법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수련회에서 운월 스님(동국대 강사)은 참선에 유용한 요가의 자세를 지도하고, 일일이 교정해주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학자와 학인 스님 간에 교류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 하지만 아쉬움 또한 못지않게 크다. 아직은 어색함이 너무 커서 기대했던 만큼 토론이 치열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서재영(동국대 강사) 한국선학회 간사는 "학자와 수행자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라며 "우선은 자주 만나야 한다"며 만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익순 기자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40>



현대면역학과 참된 나

생명현상의 가장 중심에는 각 생명체의 개체성(個體性)이 있다. 다시 말하여 모든 생명체는 각자 고유한 개체로서 각자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며, 부모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 부모가 대신 병들어 죽어줄 수 없다는 한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정 결과나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결코 우리가 생각하듯 내 몸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하기에 현대면역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진정한 신체적 자기라는 것은 그 실체가 없고 모호해진다. 면역이 외부 침입하는 이물(異物)로부터 나를 보호한다. 과연 보호 대상인 나는 누구인가? 현대면역학적 대답으로서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균형 잡힌 조화로운 상태인 것이다. 이 상태는 단지 조건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에 불과하며, 더욱이 이 조화로운 상태는 결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체간의 관계 속에서 계속 변화하는 동적 구조이다. 그래서 사

생명의 개체성 조화와 균형이 중요
'참된 자기' 외면한 삶 암에 걸린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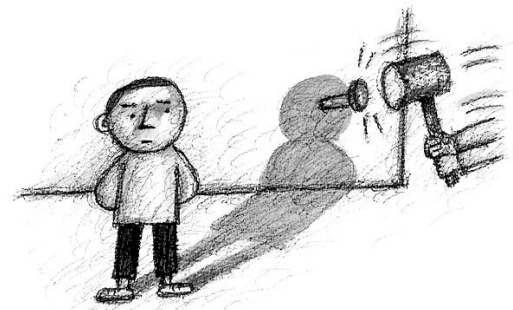
러한 각 구성체 간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점이다. 면역학은 개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진정한 자기(自己)와 이를 침입하는 타자(他者)-세균, 바이러스 등의 침입자 간의 관계, 혹은 진정한 자기와 착각하고 있는 자기(종양, 암)와의 관계를 다루며, 이러한 관계는 수많은 생체 물질이나 세포로 이루어진 망(network) 구조이다.

많은 자기가 이식을 받을 때 그 시점에서 아무리 자기 자신과 잘 맞는 장기를 이식받았다 하더라도 평생 면역억제제를 먹어야 하는 것과 같다.

건강한 면역 상태란 그러한 망 구조가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 조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면역기능이란 그러한 조화로운 상태를 진정한 자기라고 인식하여 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능에 불과하다. 결국 면역학적인 참된 자기는 마치 부처님의 연기법처럼 고정된 실체 없이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단지 그 조건에 의하여 특

이렇듯 현대 면역학은 고정 불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오직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피고 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부처님 말씀을 증명이라도 하듯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암세포가 자신으로부터 생겨난 탓에 우리의 면역계는 건강한 세포와 구분을 잘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처럼, 참된 자기를 외면한 채 회노에라 속의 허망한 자기를 참된 자기로 알아 애지중지 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일종의 암에 걸린 상태와 같은 것이다. 오직 깨어서 단지 속지만 말지니.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요일	시간	법회명	강의내용
매주일요일	10-14시	일요가족법회	자경문강의
매주수요일	10-15시	목련사랑법회	지장경강의
~	10-15시	수능자녀기도	~
~	10-15시	지장경독송회	~
매주목요일	10-15시	대비주기도회	예참문강의
셋째화요일	14-17시	부산·동선회	주제별특강

■ 특별기도

- [1] 천도의 명절 백중기도 - 2004년 7월 11일 - 8월 30일(만 50일간)
- [2] 사랑의 명절 칠석기도 - 2004년 8월 15일 - 8월 22일(만 7일간)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도량에 불자들의 모든 바램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초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라니]

금주의원발원

이제여기 사랑하는 한가족이 한데모여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네를 찬탄하며 넉넉하고 슬기롭고 화목하게 살아가길 두손모아 마음모아 지성발원 하나이다

바라건대 저희들이 생활하는 그가운데 일곱가지 바라밀다 보살도를 항상 닦아 나눠주고 아껴주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여유롭고 지혜롭고 용기있게 하옵소서

이세상의 복천으로 제일가는 불보살님 믿는마음 더욱깊고 가족들은 건강하고 학업성적 날로늘고 사업날로 번창하고 세운목표 확실하고 인제든지 화목하고

좋고싶고 있고없고 남녀노소 지위고하 믿음있든 믿음없든 마음활짝 열어놓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실천하게 하옵시고 부처님의 크신은혜 모두갖게 하옵소서

마하반야바라밀